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 협약 체결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기업체대표 간의 협력체계 구축 -



11월 5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및 기업체대표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은 지역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교육사업, 직업교육 훈련 및 대학 교육의 특성화·지역밀착화 등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의 사업을 충청남도외,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RHRD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급변 R-Pack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3억 1천만 원이 투자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급변 협약식 행사는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30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 공동 회장인 순천향대학교 서교인 총장,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총장을 비롯한 14개 대학 총·학장과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장, 삼성전자, 현대 오일뱅크 등 도내 대기업도 협약에 참여하여 '충남 R-Pack사업기관 교류협력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행·재정의 지원, 사업홍보 및 인적자원 수요·공급을 담당하고, 유관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충남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 내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자문 등 사업의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양대학교 등 14개 대학은 지역 인력의 산업 Mismatch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인재육성 프로그램개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 내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 및 활용, 지역의 수요 및 공급여건을 고려한 특화산업지원형, 취업능력개발형,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체는 본 사업을 후원·지원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지역사회 기업 및 단체 후원을 유도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사회 인적자원개발의 혁신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